

제국, 서사, 전쟁, 또는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제국론

공진성*

•요약•

이 글은 21세기의 세계질서 변화를 파악하고 전망하는 이론적 도구로서 뮌클러의 제국론에 주목하고 그 등장 배경, 내용, 특징을 살펴본다. 먼저, 세계질서의 역사적 두 유형으로서 제시되는 제국 질서와 국제 질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오늘날 두 질서가 중첩되는 이유와 제국, 패권, 국가 개념을 힘의 관계적 표현으로 파악할 필요를 확인한다. 또한, 오늘날 전 세계적 패권을 두고 다투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자기 정체성과 세계에 대한 사명을 보여주는 제국적 서사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에 근거하는 제국 질서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비대칭적 전쟁의 문제를 살펴본다. 비대칭적 전쟁의 양상은 폭력을 비대칭적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것과 연관되는데, 이는 근대의 국가간 대칭적 전쟁이 폭력을 대칭적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규제한 것과 대조된다. 이런 새로운 전쟁 현상이 국제 질서의 퇴조나 제국 질서의 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뮌클러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그 정치적 함의를 해석한다.

주제어 : 헤어프리트 뮌클러, 세계질서, 제국, 서사, 비대칭 전쟁

I. 들어가며

현재 세계의 모습을 두고 혹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불안한 세계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현재의 세계질서가 불안정하다는 데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그 불안정의 원인과 성격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데 이견이 있을 뿐이다. 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을 비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현상은 크고 작은 전쟁과 폭력의 분출이다.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각종 군사적 충돌은 세계적 수준에서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작동하던 질서와, 그 질서를 유지하던 힘과 이념이 확실히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질서의 변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이 경합하고 있다. 국제 질서를 여전히 인식의 틀로서 고수하는 시각부터 그 틀을 변형하고 확장하는 시각, 아예 그 틀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권력 개념에 근거해 사태를 관찰하는 포스트모던 제국론까지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정치학자 전재성은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 이론이 “주권국가체제 자체를 상대화할 수 있는 긴 역사적 과정을 연구하기보다 현대의 시간을 이론화의 선형적 조건으로 전제한다”면서 그 한계를 지적한다.¹⁾

정치학의 한 분야인 정치사상사 연구는 이론을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동시에, 긴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재를 상대화하고 미래를 다르게 전망할 수 있게 한다. 미래를 현재의 단순한 연장으로 보지 않고, 과거의 다른 반복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²⁾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Herfried Münkler)의 연구는 이 점에서 정치사상사적 접근이 가진 장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³⁾ 그는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과거의 경험들과 비교하고 근대 정치학이 배제했던 제국 개념을 이용해 새롭게 파악하려고 한다. 이런 그의 연구를 이 글은 ‘뮌클러의 제국론’으로 통칭하고, 그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뮌클러의 연구는 기존의 국제정치학적 접근이 대체로 간과하는 관념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국제법적 접근이 범죄시하는 비대칭적 형태의 폭력 사용을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시각에서 일반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정치질서의 유형과 연결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뮌클러의 연구는, 그의 시각을 그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현재의 질서 변화를 보는 독일적 및 유럽적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글은 21세기의 세계질서 변화를 파악하고 전망하는 이론적 도구로서 뮌클러의 제국론에 주목하고,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뮌클러가 세계질서의 역사적 두 유형으로서 제시하는 제국 질서와 국제 질서를 살펴볼 것이다. 세계질서를 ‘국

1) 전재성. 2025. 『미래 세계정치질서와 권역이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17.

2) 정치사상사 연구의 이런 특징에 대한 설명은 Münkler, Herfried and StraBenberger, Grit. 2016. *Politische Theorie und Ideengeschichte: Eine Einführung*, München: C. H. Beck, 11-22 참조.

3) 1951년에 독일 헤센주에서 태어난 뮌클러는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에서 공부했고, 1982년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1987년 근대 초기 유럽의 국가이성론에 관한 논문으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92년부터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정치이론과 정치사상사를 가르쳤고 2018년 은퇴하여 지금은 그 대학의 명예교수이다. 20세기 후반, 전후 서독의 자유주의적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였다면, 21세기 전반, 통일 독일과 통합 유럽의 현실주의적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헤어프리트 뮌클러이다.

제’ 질서라는 근대의 규범적 틀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 변화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우므로, 과거 역사를 서술할 때만 사용하던 ‘제국’ 개념을 현실 파악의 중요한 도구로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뮌클러는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영향권/세력권(sphere of influence)’ 개념과 제국 개념의 유사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존 미어샤이어(John J. Mearsheimer)나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의 생각에서 비롯한 ‘세력권’ 개념을 이용해 박종희는 규칙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 대비되는 힘 중심의 ‘세력권 질서’를 비판적으로 묘사하는데, 그에 따르면 세력권 질서는 “강대국들이 각자의 군사적 영향력이 미치는 특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비강대국에 대한 통제와 타 강대국의 개입 배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국제 질서 이념”이다.⁴⁾ 박종희는 20세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국제 질서들이 대부분 세력권 질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제국’을 그 한 가지 사례로서 언급한다. 뮌클러 자신도 앞서 언급한 국제정치학자들의 개념 사용 및 논의에 접속하기 위해 ‘영향권’ 내지 ‘세력권’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이 글에서는 대표적 제국론자인 뮌클러의 이론에 기대어 ‘제국’ 개념을 이용한 현 상황의 이해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뮌클러의 제국론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인 제국의 ‘사명(Mission)’ 또는 그것이 담긴 ‘서사(Narrative)’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뮌클러에 따르면 제국이 자기 세계에 대해 가지는 사명감은 제국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그 사명감과 관련된 제국의 이데올로기적 힘은 제국의 등장과 특히 지속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을 두고 다투는 국가들의 제국적 서사가 가진 구체적 내용과 특유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 (불)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뮌클러의 제국론과 연결해 그의 새로운 전쟁론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에서 9.11사태로 대표되는 비대칭적 테러 공격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과 러시아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의 주변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개입이 나타난다. 이런 비대칭적 전쟁 양상은 폭력을 비대칭적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것과 연관되는데, 이는 근대의 대칭적 국가간 전쟁이 폭력을 상호 대칭적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규제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런 새로운 전쟁 현상들이 국제 질서의 퇴조, 또는 제국 질서의 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뮌클러의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

4) 박종희. 2024. 『힘과 규칙: 국제질서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9.

II. 제국과 국가

1. 제국의 귀환

‘제국’이 정치학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 이후이다. 20세기 후반까지 제국 개념은 냉전의 대립 상황에서 주로 상대 진영을 비판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2차 세계대전과 함께 그 시효가 끝난 ‘제국주의’ 정책을 상대 진영에 속한 국가가 시대착오적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할 때 주로 그 개념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제국주의 개념과 제대로 구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사용되었다.

제국이 정치학적 분석의 도구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1세기 이후이다. 물론 그 전부터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악한 제국’ 소련과는 다른 ‘선한 제국’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의미론적 전복을 시도하긴 했지만,⁵⁾ 냉전 상황에서 그 시도는 상대 진영의 동일한 주장에 의해 의미가 상쇄되었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웠다. 미국의 제국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생겨났다.⁶⁾

제국에 대한 21세기의 정치학적 논의가 초기에 주로 미국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과 관련된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은 지구 곳곳에서 전쟁을 벌였고, 그만큼 또 많은 공격을 받았다. 알카에다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글로벌 테러 조직의 공격은 오히려 미국이 글로벌 제국임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와 함께 제국의 주변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대칭적 형태의 전쟁들이 정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뮌클러가 『새로운 전쟁』과 『제국』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새롭고도 오래된 현상을 분석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⁷⁾

오늘날 제국 질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느끼는 어색함은 근대를, 특히 서구의 근대를 특권화하면서 그것을 전근대의 극복으로 보는 일정한 역사관과 관련된다. 이른바 ‘진보적’ 역사관에 따르면 전근대적 제국 질서는 근대적 국제 질서에 의해 대체되었고, 다시 이 질서는 유럽연합과 같은 광역국가 또는 국가연합의 단계를 거쳐 점차 초국적 질서로 변해간다. 제국이 되려고 시도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시대가 잠시 있었지만,⁸⁾ 그것은 비

5) 이에 대해서는 이삼성. 2006. “미국 외교사학과 ‘제국’ 담론의 전복: 신보수주의와 존 L. 캐디스의 본질주의 외교사학”, 『국제정치논총』, 46집 4호, 33-60 참조.

6) 미국의 제국적 역할에 관한 21세기 초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전망들은 공진성. 2012. “제국이라는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서석사회과학논총』, 5집 2호, 143-173 참조.

7) Münkler, Herfried. 2002. *Die neuen Kriege*, Berlin: Rowohlt; Münkler, Herfried. 2005. *Imperien: Die Logik der Weltherrschaft — vom Alten Rom bis zu den Vereinigten Staaten*, Berlin: Rowohlt.

서구 세계를 근대화하고 그곳까지를 포괄하는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들로 여겨졌다. 마르크스(Karl Marx)도 인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비슷한 관점에서 정당화했다. 그렇게 서구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동안 근대적 국민국가를 전 세계로 수출했다. 20세기에 등장한 두 개의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도 그런 진보적 역사관의 영향 아래, 실제 자신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자신들을 반제국(주의)적 세력으로 인식했다.

1989년 동서독을 가로지르던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독일이 재통일되었을 때,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와 자유화 물결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진보적 역사관에 근거해 이제 ‘세계화’ 또는 ‘지구화’ 시대가 시작되었고, 곧 초국적 질서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공화국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일시적 국가연합의 단계를 넘어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세계공화국으로 발전하게 되리라는 칸트의 희망이기도 했다. 때마침 출범한 유럽연합은 초국적 질서의 등장을 예비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 동기는 군사적 영광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동기가 그러하듯이, 상업적 이익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유럽연합의 이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의 확산을 추구하는 한때 미국의 제국적 사명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제국적 사명이 신보수주의적으로 바뀌면서 미국과 유럽은 분리되기 시작했고, 최근 그 분리는 더 뚜렷해졌다.

1990년대 초부터 지구상의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근대화하지 못한 지역을 마저 근대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로 여겼다. 그러나 역사의 ‘진보’에 대한 저항은 예상외로 강했으며, 심지어 9.11 테러와 같은 ‘역풍’마저 불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형식적으로 평등한 국가들 사이의 ‘패권국’이 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고유한 세계를 주장하고 관철하는 ‘제국’이 되려고 하자 이제 사람들은 다른 역사관에 주목하게 되었다.⁹⁾ 진보적 역사관이 등장하기 전에 지배적이었던 순환적 역사관에 따르면, 제국 질서

8) 뮌클러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제국이 되려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하며, 그 점에서 “우연들과, 서로 무관한 여러 결정들, 때로는 심지어 아무런 정치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내린 결정들의 산물”인 제국과 구별된다(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36-37).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역시 제국주의와 제국을 구분하는데,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로 제국은 다수의 민족·국가를 통합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국가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 둘째로 그와 같은 국민국가가 확대되어 타민족·타국가를 지배하게 될 경우에는 제국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된다는 것”이다(柄谷行人. 2016. 『제국의 구조』(조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 b, 113).

9) 뮌클러에 따르면 “패권은 형식적으로 평등한 정치적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집단 내에서의 우세함”이고, “제국은 이 최소한의 형식적인 평등마저 없애고 약한 국가들의 지위를 종속국이나 위성국으로” 낮추는 지배이다(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33-35).

는 국제 질서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다만 반복되는 흥망성쇠의 주기 속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다.¹⁰⁾ 또한 종말론적 역사관에 따르면, 제국은 세계의 몰락을 막는 ‘카테콘(katechon)’의 역할을 한다.¹¹⁾ 이렇게 진보적 역사관의 쇠퇴와 함께, 그리고 과거의 순환적 역사관이나 종말론적 역사관에 대한 새로운 관심 속에서 제국이 정치학적 개념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2. 세계질서의 두 유형

세계의 정치질서는 ‘세계’에 대한 지배의 능력과 권리를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느냐, 아니면 여러 국가가 (적어도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느냐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즉 ‘제국 질서’와 ‘국제 질서’로 나누어진다.¹²⁾ 당연히 제국 질서의 권력 배치는 비대칭적이고 위계적이며, 국제 질서의 권력 배치는 대칭적이고 수평적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유형론적인 것이어서 현실의 구체적 권력 배치 형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¹³⁾

제국 질서와 국제 질서는, 뮌클러에 따르면, 심지어 반드시 양자택일의 관계인 것도 아니다. 제국 질서가 아니면 국제 질서이고, 국제 질서가 아니면 제국 질서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제국 질서와 국제 질서는 층위를 달리하여 겹쳐 나타날 수 있고, 그러므로 제국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도 겹칠 수 있다. 예컨대, 20세기 후반 존재했던 동독(DDR)과 서독(BRD)의 경계는 두 국가의 국경선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소련을 각각 중심으로 한

10) 제국의 순환주기에 대해서는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54 이하 참조. 똑같이 질서가 흥하고 망하는 순환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공간적으로 그 질서의 중심이 이동하는 서구의 경우와, 중국에서처럼 동일한 지리적 공간에서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경우를 나눠볼 수 있다(180).

11) ‘카테콘’은 바울이 쓴 신약성서 「테살로니가후서」 2장 6~7절에 나오는 말로서 ‘막는 자’를 뜻하며 재림, 즉 종말 전에 일어날 현상들과 관련된다. 12세기와 13세기에 신성로마제국을 정당화하는 데에, 특히 오토 폰 프라이징(Otto von Freising)의 정치적 사유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한 이 ‘카테콘’의 이미지는 현대에 카를 슈미트(Carl Schmitt)의 정치 이론에서 다시 일정한 중요성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Grossheutschi, Felix, 1996. *Carl Schmitt und die Lehre vom Katechon*, Berlin: Duncker und Humblot 참조.

12) 이에 대해서는 또한 김명섭, 2005. “국제와 제국: 국제질서의 변동과 제국담론의 발전”, 『세계지역연구논총』, 23권 1호, 25-52 참조. 뮌클러는 유럽연합 출범 이후인 1996년 역사적으로 유럽에 존재했던 제국과 국민국가라는 두 개의 질서 모델에 ‘국가들의 공동체’인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질서 모델을 더해 세 가지 질서 모델의 역사적 경쟁과 진화를 분석한 바 있다. Münkler, Herfried, 1996. *Reich, Nation, Europa: Modelle politischer Ordnung*, Weinheim: Beltz Athenäum 참조. 이 글의 관심은 우선 국제 질서와는 다른 제국 질서의 특징이므로, 국가연합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13) 막스 베버(Max Weber)를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현실의 관찰 대상을 그 각각의 유형에 비추어 보며 유사성과 상이성을 묘사하는 뮌클러의 비교역사적 연구 방법은 ‘새로운’ 전쟁과 ‘낡은’ 전쟁을 유형론적으로 구분해 묘사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두 제국이 맞부딪히는 경계선이었다.¹⁴⁾ 이런 시각에서 보면, 남한(한국)과 북한(조선) 사이의 경계 역시 두 국가의 국경선이면서 동시에 냉전 시대 두 제국의 경계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국론적 시각은 제국 질서를 매우 오래된 보편적 질서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오히려 주권 국가들 간의 국제 질서를 17세기 이후 먼저 유럽에서 등장하고 19세기를 지나며 전 세계로 퍼져 20세기에 비로소 표준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근대적 국민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국제 질서가 한번 자리를 잡은 후에는 제국과 국가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라 보충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뮌클러의 생각이다.¹⁵⁾

또한 뮌클러는 제국을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뮌클러에 따르면, 제국은 중심부 국가의 정치적 의지나 결심에 의해서만 되지도 않고,¹⁶⁾ 그 주변부의 성격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도 아니다.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듯이, 제국 역시 그 주변부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데 제국의 주변부는 그 성격이 다 같지 않다. 그래서 예컨대 로마의 제국적 자의식은 동쪽의 헬레니즘 문명을 만났을 때는 생겨날 수 없었다. 로마의 문명적 자의식은 서쪽에 있는 ‘야만인들’과의 만남에서 비로소 자라났다. 로마는 동쪽에서 패권적으로 행동했고, 서쪽과 북쪽에서 제국적으로 지배했다. 패권적으로 행동해야 할지, 제국적으로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므로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이다.¹⁷⁾ 뮌클러에게 제국, 패권, 국가는 모두 힘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지, 힘의 관계와 무관한 실체의 이름이 아니다.

여기에서 제국을 관계적으로 규정하는 ‘힘’이란 복합적 성격을 띤다. 뮌클러는 미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만(Michael Mann)의 권력 개념을 이용해 제국이 가진 힘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이데올로기적) 힘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 구성 요소들 사이의 보완 및 교환 관계에 주목한다.¹⁸⁾ 앞에서 로마가 동쪽의 헬레니즘 문명에 대해 ‘제국적’이지 않았다고 한 말은 군사적 힘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힘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국을 분석할 때는 제국이 가진 힘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도 살펴봐야 하지만, 주변부 국가와의 관계도, 특히 힘의 구성 요소별 격차도 살펴봐야 할

14)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32-33.

15)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32.

16) 중심부 국가의 팽창 의도에 집중하는 제국주의 이론과 달리 뮌클러의 제국론은 주변부의 빨아들이는 효과, 달리 말하면, 주변부의 권력 진공 상태 속으로 중심부가 오히려 빨려 들어가는 측면을 강조한다. 제국의 이런 특징이 이른바 ‘과잉 팽창(overstretching)’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37 참조.

17)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45-146.

18)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19 이하.

것이다.

뮌클러에 따르면, 제국은 자기의 고유한 ‘세계’를 가진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 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지구상에 복수의 제국이 각자의 고유한 ‘세계’ 안에서 제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뮌클러는 ‘병행하는 제국들(parallel empires)’이라고 부른다.¹⁹⁾ 그러나 하나의 세계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국적 세력은 다른 제국적 세력과 병존할 수 없다.²⁰⁾ 제국은 자기만의 세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제국 질서가 쇠퇴하고 국제 질서가 등장한 이후, 유럽처럼 좁은 땅 안에서 한 국가가 제국이 되려고 할 때, 인접한 다른 국가들은 그 국가의 제국적 야심을 적어도 유럽 안에서는 묵과할 수 없었다. 그 국가들이 물리적으로도 관념적으로도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국가들은 유럽 안에서 서로 견제하며 패권전쟁을 치렀고, 결국 세력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국가들이 아직 공유하고 있지 않던 유럽 밖의 세계에서는 각자 자기의 식민지를 거느리는 제국 행세를 할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의 미국과 소련 역시 지구라는 단일한 세계 안에서 서로 공포의 세력균형을 이루는, 그리고 서로 상대를 정당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으로 대칭관계를 형성하는 두 국가였지만, 분리된 각자의 세계(진영) 안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제국 또는 패권국의 지위를 누렸다.²¹⁾

과거의 제국이 서로 각자의 세계 안에 머무르며 다른 제국의 존재를 알면서도 무시하며 병존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제국은 단일한 세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제국적 세력들 간의 패권(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세계가 세 개로 나뉘어 있던 냉전 시대 같은 상황이 돌아올 수도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냉전 종식 이후 지구 전체가 모든 측면에서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세계를 두고 경쟁하는 제국적 세력들의 충돌로 인해 현재의 불안정한 세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경쟁의 끝에 하나의 세력이 승리하여, 마치 14세기에 단테(Dante Alighieri)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²²⁾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을 약속

19)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44.

20)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제 다른 강대국과 세계를 공유해야 한다는 엘리슨(Graham Allison)의 주장은 미국이 단극 질서를 고수하는 제국적 대외정책을 포기하고 지역적 패권 세력의 지위에 만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Allison, Graham. 2020. “The New Spheres of Influence: Sharing the Globe With Other Great Powers”, *Foreign Affairs*, Vol. 99, No. 2, 30-40 참조.

21) 제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는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44-46 참조.

22) 단테에게 지속적인 평화는 ‘보편군주정’의 수립 없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Dante Alighieri. 2009. 『제정론』(성업 역), 파주: 경세원, 35 이하와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90 참조.

하는 보편적 제국 질서를 수립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세력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에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결국 세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질서가 들어서게 될 것인가?

향후의 전망과 관련해 우리가 또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제국의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제국의 힘은 그저 군사적·경제적 힘에만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뮌클러는 역사적으로 제국의 엘리트들과 중심부 시민들, 더 나아가 주변부 주민들까지 사로잡았던 이야기의 힘에 주목한다.

Ⅲ. 제국의 서사

제국은 자기의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 서사에는 세계에 대해 그 제국이 품고 있는 사명이 담겨 있다. 그 서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가 제국적 지배의 등장과 지속에서 결정적이다.²³⁾ 제국의 서사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제국의 ‘사명’이다. 이것이 또한 제국을 패권 세력과 구별해준다. 뮌클러에 따르면, “오래 존속한 모든 제국은 자기 존재의 목적과 정당성의 근거로서 어떤 세계사적 임무, 즉 제국에 우주론적 또는 구속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사명을 선택했다.”²⁴⁾ 바깥을 향해 주로 행사되는 이데올로기적 힘과 다르게, 제국적 사명은 제국의 내부, 특히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다. 제국적 사명은 “정치적 엘리트의 자기 암시”이며, “이 암시로부터 정치적 엘리트들은 제국적 기획을 추진할 확신과 동력을 공급받는다.”²⁵⁾ 그러나 제국적 사명은 또한 자기 구속과 자기 의무를 의미한다. “제국의 사명은 제국을 옹호하는 자들로 하여 어떤 기획을 실행하도록 만드는데, 그 기획은 장기적 성격 때문에도 개별 인간의 이익이라는 제한된 지평을 훨씬 뛰어넘”으며, 그런 의미에서 제국적 사명은 “수백 년을 내다보는 제국이 그 안에서 제한된 기간에만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는 자들에게 자기의 행위 논리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²⁶⁾

이 제국적 사명은 서사와 상징을 통해 드러난다. 서사는 이야기들의 본(本)이며, 상징 또한 이미지들 속에 압축된 본이다. 서사와 상징은 이야기나 이미지와 동일한 것이 아니

23) 이 문화적·이데올로기적 힘이 제대로 발휘되어 제국이 지배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뮌클러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의 표현을 빌려,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을 넘는다고 표현한다.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54 이하 참조.

24)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95.

25)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95.

26)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96.

라, 이야기와 이미지들에서 동일한 관념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모본(模本)이다.²⁷⁾ 뮌클러에 따르면, 제국적 사명의 서사와 상징은 늘 세계의 전체 질서에 맞춰져 있으며, 이때 세계는 혼연일체의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만든 또는 앞으로 만들 주도적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력은 세계에 대한 자기의 지배권 주장의 근거와 정당성을 앞에서 언급한 제국적 사명에서 찾는다. 그것은 고대 로마 제국의 경우처럼 세계의 ‘탈야만화’에 있을 수도 있고, 12세기와 13세기 신성로마제국의 경우처럼 세계의 종말을 멈추는 ‘카테콘’의 역할에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스페인 제국의 경우처럼 선교를 통한 기독교의 전파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영국 제국의 경우처럼 아예 세속적으로 세계무역의 확산을 추구할 수도 있다.²⁸⁾

서사와 상징은 세계질서의 형성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제국적 세력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정당화이면서 동시에 세계질서의 건설을 위한 지침서이다.²⁹⁾ 어쨌거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질서에서 자기의 특별한 지위와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저 더 큰 정치적 힘이나 군사적 힘에 근거해서만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서사적 및 상징적 정당화는 같은 공간에서 지배적 지위를 두고 경쟁하는 다른 세력을 향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제국적 사명의 대상으로 선정된 ‘야생인들’과 ‘야만인들’, ‘뒤쳐져 있는 자들’과 ‘의존해 있는 자들’, ‘미신적인 자들’과 ‘오도된 자들’을 향해서도 이루어진다. 제국적 사명은 세계의 상태에 관한 서사이고, 또한 세계가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지, 그 구상에 관한 서사이다. “민족 서사가 과거지향적이고 특정 공간의 역사에 천착하여 그로부터 기원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얻으려고 한다면, 제국적 사명의 서사는 지극히 미래지향적이며, 한때 무엇이었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보다, 앞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³⁰⁾

그 중간의 위치에 반식민적 또는 반제국적 서사가 자리 잡는다. 그것은 한편으로 민족적 이야기들을 포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국적 사명의 부정(否定)이라는 주도적 서사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그것은 제국이 창조한 세계질서의 대항적 이야기이고 부정적 상징이다. 이 서사들은 피지배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전시키며, 그 정체성은 제국적인 것의 각인을 벗고 다른 민족들의 정체성과 나란히 서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뮌클러에 따르면, “세계질서를 둘러싼 싸움은 언제나 또한 서사적·상징적 투쟁의

27)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Die Ordnung der Mächte im 21. Jahrhundert*, Berlin: Rowohlt, 247.

28)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50.

29)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51.

30)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51-252.

로서 벌어진다.”³¹⁾

지구 전체가 하나의 세계로 통합된 ‘세계화’ 시대 이후, 하나의 국가가 마치 고대의 제국처럼 자기의 고유한 세계 안에서 비대칭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졌다. 그런 지위를 추구하는 국가는 단일한 세계 안에서 함께 경쟁하는 다른 국가와 패권을 두고 다투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나마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제국적 행위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한때 있었지만,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그런 기대는 약해졌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는 ‘자유주의 세계’ 내에서조차 미국의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다.

제국적 서사의 약화는 먼저 자기모순 속에서 시작되고, 이어서 수평적으로 다른 제국적 서사의 경쟁적 등장을 통해, 그리고 수직적으로 기존의 제국적 서사의 영향 아래 있던 곳에서 등장하는 저항적 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제국적 서사가 드러내는 자기모순과, 이에 맞서 제시되는 러시아와 중국의 제국적 서사와 그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자.

1. 미국 네오콘의 대안적 제국 서사

뮌클러에 따르면, 원래 미국이 가진 제국적 사명의 핵심 서사는 민주적 참여(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인권), 물질적 부(자유시장), 이 세 가지의 세계적 확산이었다.³²⁾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은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 즉 이데올로기적이고 문화적인 힘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했다. 그러나 1989년 12월의 파나마 침공에서 시작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방어’ 개념을 점차 확장했으며, 결국 그 개념이 전 세계에서 군사적 개입에 대한 임의의 정당화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제국적 사명에 대해 모순적이었다.³³⁾

이런 자기모순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뮌클러는 미국의 세계정치적 역할에 관한 서사에 내리막길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추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드리워져 있음을 지적한다.³⁴⁾ 이것은 영원히 뒤쳐져 있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러시아의 경우와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지구적 영향력을 가진 세력이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의

31)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52.

32)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213-218.

33) 최근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통해서도 이런 정당화 방식이 드러나는데, 이런 비대칭적 개입 권한의 주장은 제국적 행위자의 전형적 특징이지만, 최근의 개입은 보편적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을 구실로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 미국이 표방하던 제국적 사명과 더욱더 모순적이다.

34)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69.

지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기의 제국적 사명에 대해 모순적인 결정과 행동을 유발하는 대안적 서사가 자라 나온다.

흔히 ‘네오콘’으로 불리는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평온한 상황과 오래 지속되는 평화가 미국의 지구적 리더 역할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³⁵⁾ 이런 생각은 ‘임페리움 로마눔’과 ‘아메리칸 엠파이어’ 간의 비교에서 비롯하는데, 그렇게 오래 지속된 로마 제국도 결국은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탐구한 18세기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의 결론은 안토니우스 황제 시절 맞이한 오랜 평화 때문에 역설적으로 로마가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랜 평화 속에서 지구적 리더 역할을 점점 외면하려고 하는 미국 정치와 미국 시민의 도덕적 타락의 위협에 대해 네오콘이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전쟁이었다. 그러나 이로써 미국은 지구적 지배에 대한 자기의 권리 주장을 정당화하는 서사와 상징을 점차 부정하게 되었다.³⁶⁾

네오콘의 대안적 서사는 종교적으로 정당화된 미국 예외주의의 기존 서사, 즉 세계를 구원사적 목적지로 이끌고 세계를 자유, 민주적 참여, 물질적 부의 위대한 동산으로 바꾸도록 신이 미국을 선택하여 불렀다고 하는 생각을 불신한다. 이런 미국의 자기 이미지에 반해 네오콘은 로마 제국의 몰락에 대한 기번의 묘사에 기대어 제국의 역사에 관한 다른 고찰을 제시한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 도달해 그곳에서 편하고 걱정 없이 사는 데 적응하려는 제국의 경향에 맞서 전쟁을 정치적 재활성화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미 로마 시대에 공화주의적 담론이 순환운동이라는 역사철학적 서사에 맞서 “정치적 회춘의 샘으로서의 전쟁”이라는 서사를 내세웠는데, 강력한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권력의 정점 조금 ‘아래’ 머무를 때 오히려 쇠락의 법칙에 따라 몰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³⁷⁾ 네오콘은 이와 같이 ‘영구적 전쟁’이 가진 치료 효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이 초강대국의 힘과 자원을 극단까지 소진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월한 위치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전쟁과 군사적 개입이 추구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지구적 리더 국가의 내적 삶에 작용하는

35) 미국의 네오콘과 몰락 서사에 관해서는 Fella, Tobias. 2022. *Preventing Preemptive Superpower Suicide: Neokonservative Logik und Amerikas Niedergang*, Doctoral Dissertation,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참조. 뮌클러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네오콘 이론가는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이다.

36)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70. 트럼프와 마가(MAGA) 운동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불필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네오콘 서사와 다르고, 아래에서 언급할 것처럼, ‘종교적으로 정당화된 미국 예외주의의 기존 서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도 네오콘 서사와 다르다. 종교적 함축이 가득한 기존의 서사를 수용하면서도 세계에 대한 역할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더 앞세우는 ‘넷콘(국가보수주의)’ 서사는 미국의 힘이 약해진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다.

37)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71.

긴장과 투쟁의 효과”이기 때문이다.³⁸⁾

이와 같은 미국의 대안적 제국 서사는 그에 따른 대외정책이 정치적 회춘은커녕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쇠퇴, 군사적 실패를 가져옴으로써 내부적으로 점점 그 힘을 상실했고 주변부와 바깥에서 더욱 불신받았다. 그리하여 ‘국가보수주의’ 또는 ‘마가(MAGA) 운동’이라는 또 다른 대안적 서사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2025년 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NSS)은 현재의 미국이 유럽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리더 역할조차 버거워하며, 그 세계가 분열된 탓을 정체성을 상실한 유럽에 돌리면서 오히려 자기의 종교적 우경화와 정치적 보수화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영향권을 이른바 ‘서반구’로 국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2. 러시아의 제국적 서사와 정체성 갈등

뮌클러가 보기에 러시아의 정체성 구성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유럽과의 관계였고, 그 관계에 따라 러시아가 스스로 주장한 위치였다. 러시아의 자기 안전보장은 그래서 처음부터 복잡하고 모호했다. 유럽과 연결해 자기를 이해할 때, 문제는 언제나 서구에 비해 근대화에 뒤처진 러시아의 현실이었다. 이로부터 두 가지 정체성 서사가 생겨났는데, 하나는 사후 노력을 통해 서구와 미국을 따라잡는(모방하는)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의 정체성에 대해 고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서사이다. 후자는 대개 서구의 데카당스, 즉 퇴폐와 타락이라는 생각과 결합했다. 이때 유럽의 경제적·기술적 우위와 도시 문화의 동반자인 도덕적 타락이 강조되었다.³⁹⁾ 이런 유럽에 맞서 친슬라브 서사는 본래의 도덕성을 간직하고 있는 러시아 농부의 이미지와 연대적 공동체인 시골 마을의 이미지를 제시했다. 데카당스 서사는 또한 세계의 질서를 결정하려는 서구의 시도가 실패한다는 생각을 포함했다. 서구가 세계의 질서를 지탱하고 보장하는 세력일 수 없고 세력이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서구가 이끄는 세계가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와 함께 세계와 그 질서의 구원자, ‘카테콘’이 되었다.⁴⁰⁾

러시아의 구속력 있는 자기 이해를 둘러싼 이 두 개의 서사, 즉 서구의 모범을 따르는

38)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72.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평화를 지향하는 유럽이 한편으로는 ‘평화의 부작용’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치르는 희생을 대가로 ‘낙원의 평화’를 누린다고도 생각한다. 로버트 케이건은 이런 생각을 자신의 글을 통해 반복해서 드러낸다. 케이건, 로버트. 2003. 『미국 vs 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홍수원 역), 서울: 세종연구원 참조.

39)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55.

40)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55-256.

서사와 서구의 도덕적 부패와 타락에 관한 서사 간의 투쟁은, 뮌클러에 따르면, 특히 정치·사회적 변혁의 상황에서 문자 그대로 열린 질문이었으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러시아 사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분열되었다.⁴¹⁾ 1989/91년 이후, 즉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제국이 해체된 후에 그랬고, 소비에트 사회의 사회경제적 재건 프로젝트가 이미 고르바초프 시대에, 그리고 특히 열친 시대에 점점 더 서구의 경제 모델을 지향했을 때 그랬으며, 푸틴이 취임한 뒤 다시 서구에 대한 러시아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 그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지속적으로 서구에 의한 자신들의 섬멸 위험을 언급하는데, 뮌클러의 추론에 따르면, 이들은 서구로의 계속되는 두뇌유출과 자본유출에 직면해 “고유의 자기 이해를 위한 모범 또는 도전으로서의 ‘유럽’”을 지움으로써 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한다.⁴²⁾

악명높은 열등감 속에서도 자기 나라와 문화를 드높이며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러시아의 지식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는 로마로부터 콘스탄티노플을 지나 ‘제3로마’인 모스크바로 제국의 정당성이 이동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⁴³⁾ 이로써 유럽에 우선하는 지위는 아닐지라도 똑같이 정당성을 가지는 지위가 러시아에 부여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고유의 슬라브 또는 몽골 정체성을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다.⁴⁴⁾ 그 정체성은 유럽 문화에 대립해 있었는데, 세계질서의 형성에 대한 경쟁적 주장들이 이로부터 도출되었다.

첫 번째 응답은 16세기에 모스크바가 ‘제3로마’라는 공식을 주조한 프스코프(Pskov)의 수도승 필로페이(Filofej)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서사는 오늘날 다시, 예컨대 러시아가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극우민족주의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Aleksandr Dugin)의 주장에서 발견된다.⁴⁵⁾ 두 번째 응답은 19세기에 서구주의자들과 슬라브주의자

41)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56.

42)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56.

43) ‘모스크바-제3로마’ 사상에 대해서는 엄충섭. 1990. “‘모스크바-제3로마’ 이론에 관한 연구”, 『노어노문학』, 3권, 201-218 참조.

44) 유럽의 ‘아시아화’에 대한 공포는 ‘러시아의 아시아화’와 연결되며, 이것은 다시 ‘동양적 전체주의’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오래된 동방 혐오와 연결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다룬 이진우의 책은 유럽인이 가진 러시아와 아시아에 대한 공포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데, 그것이 ‘유럽화’한 아시아인의 시각이라는 점에서 또한 특기할 만하다. 이진우. 2022.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 서울: 휴머니스트, 특히 27 이하 참조.

45) 두긴의 사상에 대해서는 최진석. 2023. “보편제국, 근대의 초극 혹은 귀환: 알렉산드르 두긴과 유라시아 지정학”, 『슬라브학보』, 38권 4호, 333-360과 이진우. 2022.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 서울: 휴머니스트, 134-141 참조.

들 간의 논쟁에서 다듬어 표현되었다. 여기에서 유럽은 슬라브주의자들에 의해 피곤과 소진의 공간으로 파악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재생을 위해 러시아의 야생적인 것에, 원시적이고 이국적인 것에 의존해 있다고 여겨졌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유럽 사회를 젊어지게 하고 활력 있게 하는 치료제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데카당스 담론의 초기 변형인데, 뮌클러에 따르면, 데카당스 담론은 최근 몇 년 전부터 다시금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적 시각을 각인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작가들은 서구의 물질주의로부터 세계를 구원하는 역할을 동방, 특히 러시아의 영성(靈性)에 부여한다.⁴⁶⁾ 이 두 응답은 모두 제국 담론에 속한다. 첫 번째 응답은 성스러움의 이전(移轉)에 근거한 제국적 지배의 정당성 주장이다. 두 번째 응답은 제국적 사명에 근거한 것인데,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세계의 개선이 아니라 ‘구원’이다. 둘 다 러시아의 세계정치적 역할을 강조한다.

뮌클러는 2014년과 2022년의 전쟁을 전후한 상황을 분석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푸틴과 그의 정권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괴롭고도 모순 가득한 방식으로 새로운 정체성 서사를 찾는 재앙”이 되어버렸다고 평가한다.⁴⁷⁾ 또한 푸틴이 이로써 소련 몰락 후 지식인들이, 1920년대에 이민자 서클에서 이루어진 논쟁으로부터 ‘러시아의 이념(русская идея)’으로 재구성한 모든 것을 그저 보잘것없는 책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었고,⁴⁸⁾ 일시적으로 중심에 놓았던 가치의 문제를 단순한 권력의 문제나 폭력의 문제로 축소해버렸다고 비판한다.⁴⁹⁾ “푸틴은 그가 추구하는 제국의 사명을 제국을 다시 건설하려는 시도 속에서 문자 그대로 파괴”해 버렸고, 그래서 적어도 뮌클러 같은 유럽인의 시각에서 볼 때,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의 제국적 서사에는 “오직 팽창주의적 제국 서사와 잔혹한 예측화 실천”만이 남았다.⁵⁰⁾

3. 중국의 반제국주의적 제국 서사

중국의 제국 서사는 앞에서 살펴본 미국과 러시아의 제국 서사와 사뭇 다르다. 뮌클러에 따르면, 중국의 지식인들이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언급할 때 취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유보적이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제국의 지위를 주장하기보다 기존 상황에 대

46)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58.

47)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61.

48) 그 대표적 인물인 니콜라이 베르다예프(Nikolai Berdyaev)의 사상과 ‘러시아의 이념’에 대해서는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61-262, 그리고 김민아. 2017. “베르다예프와 러시아 혁명”, 『인문논총』, 74권 4호, 159-160 참조.

49)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61.

50)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67.

한 비판에 집중한다. 그래서 중국의 서사는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띤다. 이때 비판의 대상은 현재의 세계질서에 책임이 있는 ‘서구’, 즉 미국과 유럽이다. 이런 중국의 서사 속에 담긴 제국적 사명을 뮌클러는 ‘부정적 사명’이라고 부른다.⁵¹⁾ 그러므로 중국의 서사 속에서 이 ‘서구적’ 질서의 불의함,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약탈, 그리고 결국 자기모순 속에서 몰락하게 될 그 질서의 운명이 거론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이 서사의 정치적 기능은 중국이 이끄는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에 편입될 동맹을 모으는 것이다.⁵²⁾ 이 서사 속에서 중국은 반제국주의 세력의 패권국이며,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중국 뒤에 서 있다.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선 반제국주의적 통일전선은 그 ‘부정적’ 성격 때문에도, 그리고 거기에 합류하는 국가들의 상이한 관심과 기대 때문에도 세계질서에 대한 명확한 비전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미래의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구상은 서구적 세계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국가가 그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호하고 일반적인 형태로 제시된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현대 중국의 철학자 자오팅양(趙汀陽)의 ‘천하체계(天下體系)’ 구상이다.⁵³⁾

뮌클러는 자오팅양의 ‘천하’ 관념이 중국적 의미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상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다고 판단하는데, 단순히 자오팅양이 북경 사회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서 중국 지도부의 정책에 가까운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오팅양이 자신의 천하 구상을 공자, 노자 등과 같은 중국의 고대 사상가들과 연결하고, 이를 통해 그들을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기여로 묘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⁵⁴⁾

자오팅양은 이기적인 개인을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 자유주의 사회의 모습이 결국 강자의 이익이 관철되는 불평등한 질서이듯이, 이기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들의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도 강대국 중심의 불평등한 질서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오팅양의 시각에서 보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 트럼프식의 일방주의적 세계질서 간에는, 그 은밀함과 솔직함의 차이를 빼면, 모두 ‘서구적’ 질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기존의 이 서구적 질서는 근본적으로 자국 이기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인류 공동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오팅양이 제시하는 것은 ‘세계’ 자체를 정치적 사유의 주체로, 더 나아가 정치적 실천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때 중국

51)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77.

52) 2026년 1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3) 趙汀陽. 2022. 『천하: 세계와 미래에 대한 중국의 철학』(김중섭 역), 서울: 이음.

54)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78.

이 기여할 수 있다고 그가 여기는 것이 바로 고래의 ‘천하(天下, tianxia)’ 관념이다. 약 3천 년 전, 주(周) 왕조 시절, 공동선에 대한 지향 속에서 발전한 천하 관념이 바깥이 없는 정치적 세계, 즉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치적 세계를 생각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자오팅양에 따르면 바깥이 없는 천하 질서는 친구와 적의 대립에 기초해 다른 것을 배제하는 주권적 영토국가 중심의 질서 모델보다 우월하다. 주권국가들로 가득한 현재의 세계 체계는 공동의 세계 이익에 봉사하는 진정한 ‘세계’ 체계가 아니라, 패권적 국가들의 ‘제국주의’ 체계에 불과하다. 이런 체계 속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패권적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유지를 약탈하고 그 황폐화의 ‘유산’이 글로벌 사우스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구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공유지의 민간경제적 분배가 아니라, 공유지의 관리를 담당할 세계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오팅양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 정부를 운영해야 할까? 자오팅양은 이 질문에 모호하게 답한다. “미래의 천하는 누구의 천하인가? 이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미래를 미리 알 수 없으니까.”⁵⁵⁾ 그러나 뮌클러는 그것이 ‘중국의 헤게모니’, ‘팍스 시니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⁵⁶⁾ 물론, 천하의 질서를 조종하고 통제하게 될 것이 지금의 중국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중국은 하나의 주권 국가이며, 지구적 천하 시스템 안에 주권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옳지만, 뮌클러에 따르면, 자오팅양의 주장 전체는 천하 시스템을 설치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중국의 엘리트들이 맡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첫째, 그것이 기원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중국적 모델이기 때문이고, 둘째, 그것이 많은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기술관료적 조직과 비슷하기 때문이며, 셋째, 중국의 엘리트들이 저런 시스템을 다루는 일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⁵⁷⁾ 뮌클러는 어쨌거나 천하가 그 참가 규칙과 기능적 메커니즘 상 경쟁과 라이벌 관계에 근거하는 민주적 질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권위주의적이고 기술관료적인 엘리트들이 조종하는 질서일 것이고, 이때 엘리트의 충원은 능력원칙에 따라, 즉 선발(co-optation)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의 관념들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뮌클러는 유럽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⁵⁸⁾

55) 赵汀阳. 2022. 『천하: 세계와 미래에 대한 중국의 철학』(김중섭 역), 서울: 이음, 346.

56)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81.

57)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81.

58)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282.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체제의 도전에 대해 유럽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뮌클러는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위기에 처한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한 뮌클러의 생각은 Münkler, Herfried. 2022. *Die Zukunft der Demokratie*, Berlin: Brandstätter Verlag 참조.

IV. 제국과 비대칭적 전쟁

제국의 서사에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제국의 인식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제국은 한편으로 세계의 평화, 경제적 번영, 또는 도덕적 재생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주장하지만, 동시에 그 사명의 당위성의 증거이자 실천의 장애물인 바깥의 적들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⁵⁹⁾ 이는 제국이 자기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변부와 바깥에 군사적 힘을 사용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힘의 행사를 선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제국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런 비대칭적 방식은 근대의 대칭적 방식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제국이 자기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과 대조하기 위해, 근대국가가 자기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먼저 살펴보자.

1. 폭력의 국가 독점과 양자 모두 정당한 전쟁

베버(Max Weber)에 따르면 근대국가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물리적 폭력의 정당한 사용을 독점한다.⁶⁰⁾ 근대국가의 특징을 표현한 베버의 정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폭력의 ‘정당한’ 사용이다. 폭력 사용의 정당성을 독점한다는 것은 정당성에 대한 해석을 독점한다는 뜻이다.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근대적 정당성의 기원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 유럽의 오랜 종교전쟁 끝에 등장한 근대적 주권 국가는,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묘사한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에 따르면, 교리와 학설의 올바른 해석을 독점해야 한다. “인간의 행위는 품고 있는 사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잘 규제”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 의견부터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⁶¹⁾ 국가의 해석 독점이 진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홉스는 “평화와 화합이 자연법에 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에 반하는 사상이 진리일 수는 없”다고 반박하며, 결론적으로 “평화를 위해, 의견이나 사상의 가부(可否)를 판단하고, 이를 위한 판관을 두어 불화와 내란을 방지하는 일은 주권을 지닌 자의 일”이라고 주장한다.⁶²⁾

59) 자오팅양의 천하체계가론이 보여주는 중국의 제국 서사에는, 천하에 바깥이 없는 만큼, 미국과 러시아의 제국 서사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바깥에 대한 두려움이나 추격이나 몰락에 대한 불안이 없다. 그것은 한편으로 중국의 제국적 서사가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지난 십여 년 동안 중국이 이룬 기록적 경제성장에 근거한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60) Weber, Max. 2023. 『직업으로서의 과학 | 직업으로서의 정치』(김덕영 역), 서울: 길, 92.

61) Hobbes, Thomas. 2008. 『리바이어던 1』(진석용 역), 파주: 나남, 240-241.

62) Hobbes, Thomas. 2008. 『리바이어던 1』(진석용 역), 파주: 나남, 241.

정당성에 대한 주권자의 해석 독점에 따라 이제 무엇이 올바른 복종이고 부당한 저항 인지가 구별된다. 물리적 폭력의 유무 자체가 복종인지 저항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 복종이고 무엇이 저항인지를 결정하며, 주권자가 그 해석의 최종 심급이라고 홉스는 주장한다. 그럴 때 비로소 내전이 종식될 수 있고 방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물리적 폭력 독점은 폭력의 의미에 대한 해석 독점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해석의 독점이 무너질 때, 폭력의 물리적 독점도 함께 무너진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그 지역의 종교를 결정한다(cujus regio, ejus religio)’는 베스트팔렌 체제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평화는 어떤 물리적 폭력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 정당한 폭력 행사인지를 해석할 권한과 능력이 독점된 상태, 그래서 ‘정당한’ 폭력이 ‘부당한’ 폭력을 통제하는 상태이다. 해석은 물리적 힘으로 뒷받침되지만, 물리적 힘만으로 해석을 관철할 수는 없다.⁶³⁾ 그러므로 주권의 범위(jurisdiction)는 곧 해석의 범위이다.

각자의 영토에서 옳고 그름의 해석을 독점하고, 그러므로 정당한 폭력 사용을 독점하는 주권 국가들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무정부적이다. 국가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폭력은, 그 정당성의 해석이 독점되지 않는 한, 독점되지 않는다. 주권 국가들 사이에는 해당 국가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잠정 협정(modus vivendi)’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국내법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을 지닌 법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해석 갈등을 끝낼 상위의 해석 권력이 없기 때문에도, 국제 질서의 사법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국제 질서는 대칭적이고, 이 질서에서 통용되는 규범은 최소한일 수밖에 없다. 자연 상태의 국가들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외에 아무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⁶⁴⁾ 국가들 사이의 물리적 폭력 사용을 의미하는 전쟁 역시 금지되지 않는다. ‘양쪽 모두 정당한 전쟁(bellum iustum ex utraque parte)’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근대적 국제 질서의 대칭적 상태를 표현한다.⁶⁵⁾

63) 해석의 관철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힘 또는 서사적 힘이 작용해야 한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의 해석 독점을 위해 서사적 경쟁에 뛰어들 한 지식인의 지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64) 이 원칙은 자연 상태의 인간이 가진 권리 상태에서부터 유추된다.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Benedictus de Spinoza)에 따르면, “자연의 법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스피노자, 베네딕투스 데, 2020, 『정치론』(공진성 역), 서울: 길, 83).

65) 이 새로운 관념은 16세기에 스페인의 가톨릭 철학자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에 의해 처음 표현되었고, 이탈리아의 법학자 알베리코 젠틸리(Alberico Gentili)와 네덜란드의 법학자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에 의해 국제법 논문에 수용되었으며, 이로써 고전적 국제법 교리에 도입되었다(Delbrück, Jost and Dicke, Klaus, 1985. “The Christian Peace Ethic and the Doctrine of Just War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Law”,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8,

모든 국가가 전쟁을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전쟁을 통제하는 것일까, 아니면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일까? ‘양쪽 모두 정당한 전쟁’ 관념은 한편으로 전쟁을 기존의 제국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쟁을 새로운 국제적 통제 안에 가두었다. 주권 국가 사이의 합의를 통해, 즉 폭력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공동의 해석을 통해 전쟁을 통제했다. 물론 이 통제는 해석의 독점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제한적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등장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탄생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주권 국가 간의 얽으나마 공유된 이해에 근거해 폭력을 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국제적 시도였다.⁶⁶⁾

2. 비대칭적 전쟁과 전쟁의 비대칭적 정당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국민국가가 자기의 영토 안과 밖에서 모두 폭력의 ‘정당한’ 사용을 온전히 독점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 결과가 바로 트랜스내셔널 내전과 글로벌 테러리즘이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학살과 그것을 막기 위한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이며, 그런 전쟁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군벌들과 현대판 용병인 민간군사회사들(PMCs)이다. 처음에 뭉클러는 이런 현상을 통틀어 ‘새로운 전쟁’이라고 불렀다.⁶⁷⁾ 기존의 근대적 전쟁 개념, 즉 주권 국가들 간의 조직된 무력 충돌만을 전쟁으로 부를 때 배제되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 사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전쟁’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⁶⁸⁾ 단순히 기존에 통용되던 국제법의 틀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는 근대적 전쟁, 즉 국가 간 결투의 형식을 띠며 양자 모두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어느 편이 정당한지를 판결할 상위의 권력이 없어서 결국 양자 모두 정당할 수밖에 없는 대칭적 전쟁을 특권화해

198). 또한 Münkler, Herfried. 2012. 『새로운 전쟁』(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36 참조.

66) 뭉클러가 보기에, 오늘날 유럽이 가진 제국적 서사의 결핍은 이런 기획과 관련된다. 유럽연합은 이 기획의 산물이지만, 이 기획이 세계 전체에 관철되기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데, 유럽은 아직 그런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런 힘을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세계에 대한 사명감과 그 사명감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다.

67) 이 ‘새로운 전쟁’이라는 용어는 일반명사에 가까워서 어느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뭉클러는 자신이 사용하는 이 용어를 영국의 사회학자 칼도어(Mary Kaldor)가 먼저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Münkler, Herfried. 2012. 『새로운 전쟁』(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60). 이 개념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격 때문에 뭉클러는 점차 이 개념의 사용을 줄인다.

68) 이에 대해서는 Münkler, Herfried. 2012. 『새로운 전쟁』(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5-18과 공진성. 2019. “전쟁의 변화와 전쟁론의 진화”, 『현대정치연구』, 12권 2호, 134-137 참조.

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짧은 근대의 대칭적 전쟁의 시기 전에는 비대칭적 전쟁이 지배적이었고, 지금 다시 그런 비대칭적 형태의 전쟁이 그 수행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그 정당화의 차원에서도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칭적 질서에서는 폭력 사용의 정당성을 양측 모두가 가지며, 그래서 전쟁이 ‘결투’의 형식을 띠면, 비대칭적 질서에서는 그 정당성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어느 일방이 가지며, 그래서 전쟁이 ‘처벌’의 형식을 띤다. 비대칭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국 질서이다. 제국 질서는 역사적으로 문명 담론과 결합해 그 안에서 사용되는 폭력을 한편으로 정당화했고, 다른 한편으로 규제했다. 폭력 사용의 정당성을 어느 일방이 가지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은 그저 우월한 물리적 힘만이 아니라, 또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었다. 문명 담론은 제국적 세력의 폭력 사용을 정당한 것으로, 야만적 세력의 폭력 사용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종의 해석 틀이었다. 그 해석 틀이 적용되는 범위만큼 제국의 지배 역시 관철되었다. 해석적 힘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제국 질서의 주변부에 있는 국가와 주민들이 그 질서가 제공하는 문명의 혜택을 확신하고서 자발적으로 그 질서를 방어했지만, 해석적 힘이 약해지면 제국 질서의 주변부에서부터 저항과 반란이 일어나 그 폭력이 심지어 중심을 향하기도 했다. 그러면 제국은 다시 그런 공격을 막고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 즉 다시 야만의 상태로 돌아간 주변부를 평정하기 위해 ‘제국전쟁’을 감행하기도 했다.⁶⁹⁾

국가 바깥에 다른 국가가 있다면, 제국 바깥에는 야만이 있다. 이를 뮌클러는 독일 역사학자 오스터함멜(Jürgen Osterhammel)의 개념을 빌려 ‘제국의 야만 경계’라고 부른다.⁷⁰⁾ 국가의 적이 ‘정당한 적’ 또는 ‘공적인 적’이라면, 제국의 적은 ‘부당한 적’ 또는 ‘절대적 적’으로 간주된다. 다른 국가의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면, 야만은 그저 ‘문명’의 결핍이다. 이런 야만을 문명화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제국은 한편으로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야만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느낀다. 야만을 문명화하기 위해서도, 야만에 맞서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제국의 폭력 사용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부당한 적’에게 행사되는 폭력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야만인의 폭력이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제국의 폭력은 문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에 따라 어느

69) 이명수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을 2014년 일어난 ‘오렌지 혁명’에서 찾는데, 러시아 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협력자(야누코비치)가 축출된 이 사건을 계기로 불안을 느낀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주변부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이명수. 2025. “우크라이나전쟁의 ‘제국전쟁’적 기원과 양상: 뮌클러의 제국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9집 4호, 257-273 참조.

70) ‘제국의 야만 경계’에 관해서는 Osterhammel, Jürgen. 1995. “Kulturelle Grenzen bei der Expansion Europas”, *Saeculum*, Vol. 46, 109f., 그리고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82 & 338-339 참조.

일방에 폭력 사용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이 비대칭적 구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근대의 제국 질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뮌클러는 20세기 후반에 세계를 내정(內政)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정당한 전쟁’ 개념이 부활한 것에 주목한다.⁷¹⁾ ‘정당한 전쟁(bellum iustum)’ 개념은 초대 기독교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에 의해 제시되어 제국의 자기방어를 위한 전쟁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사실, 전쟁이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구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로마 제국이 ‘야만인’의 침략을 받고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그에 맞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쟁의 도구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전쟁을 도덕적으로 규제하고자 했다.⁷²⁾

아우구스티누스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당한 전쟁’ 개념은 실천적으로 이교도(야만)에 맞선 기독교 세계(문명)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했다. 기독교 세계는 야만이라는 부당한 적의 관념에 종교적 의미를 더했다. 이제 문명의 바깥에 있는 야만은 ‘이교도’와 ‘이단’의 의미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그와 함께 제국의 문명화 사명도 선교의 사명으로 바뀌었고, 야만을 향해 행사되는 문명의 폭력도 이단을 바로잡고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정당한 일이 되었다.⁷³⁾ 종교적 열정이 더해진 문명화 사명은 자기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

17세기에 홉스가 전쟁을 통제하기 위해 유명론적 진리관과 법실증주의를 내세운 것은 이런 맥락에서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홉스는 ‘정당한 전쟁’ 개념이 내포하는 선형적이고 실제적인 정당성을 법적이고 형식적인 정당성으로 바꾸고, 주권자를 그 법적이고 형식적인 정당성의 최종 결정자로 만듦으로써 최소한 국내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상대주의를 내포하는 유명론적 진리관과 법적·형식적 정당성 관념을 부정하는 종교적, 철학적, 반민주적 사조가 다시 등장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런 사상적 경향은 홉스로 대표되는 근대적 국가 관념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제거함으로써 결국 허무주의를 낳았다고 비판하면서, 진리를 향한 노력 속에서 또한 ‘올바른’ 정체의 수립을 지향한다. 레오 슈트라우스(Leo Strauss)의 정치사상이 슈트라우스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에게서 그렇게 수용된 것이 그저 우연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한 전쟁’이 오늘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진지한 관심 속에서만 추구되는 것

71) Münkler, Herfried. 2012. 『새로운 전쟁』(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69 & 261-262 참조.

72)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한 전쟁’에 관한 생각은 그의 『신국론』 19권에 제시되어 있다.

73) 그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 제국의 종교심문(Inquisition)이고 아메리카에서의 원주민 학살일 것이다.

은 아니다. 오히려 이 개념은 제국적 행위자들과 그에 맞서는 저항적 행위자들이 서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극히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의도한 자기규제적 이념으로서도 아니고, 진리에 대한 앎을 전제하고서 올바른 정체를 수립하는 도구로서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서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악에 맞서 싸우는 정당한 ‘십자군 전쟁’처럼 묘사되었고, 서구의 그런 침략에 맞서는 이슬람 테러 조직의 전쟁이 ‘지하드’, 곧 성전으로 묘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용의 정당성은 상대의 실존적 악함에 의해 미리 확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그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반격에서도 각각 상대의 ‘인종주의’와 ‘제국주의’가 폭력의 정당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폭력이 일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원인은 폭력에 대한 국가의 해석 독점과 국가들 사이에 공유된 해석이 약해진 데에 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초국적 질서가 관철되어 폭력의 국가 독점이 약해진 결과이지만, 그 초국적 질서를 유지할 실질적 힘이 세계에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냉전의 붕괴 후, 이른바 ‘역사의 종언’ 또는 ‘자유주의의 승리’를 외쳤을 때, 사람들은 보편적 규범에 근거한 세계질서가 곧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세계가 하나의 내정 단위가 될 것이며, 전쟁은 경찰 행위와 같은 것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의 사태는 사람들의 기대나 예상과 달랐다. 무엇보다도 그 원인은 근대적 국제 질서가 전 세계에 관철되지 못하고, 로버트 쿠퍼(Robert Cooper)의 표현처럼,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에 실패한(failed) 국가들의 ‘프리모던’ 세계와 그 일에 성공한 국가들의 ‘모던’ 세계, 그리고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려는 국가들의 ‘포스트모던’ 세계가 공존한 데에 있었다.⁷⁴⁾ 이 균질적이지 않은 세계에서 유럽이 ‘프리모던’ 세계에 근대적 질서를 수출하려고 했다면, 미국은 그 세계에 둘러싸인 자기를 위태롭게 인식하며 자기의 방어와 주변의 평정을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⁷⁵⁾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냉전 종식 후 잠시 수립되는 것처럼 보였던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자기를 정당화할 이념적 힘을 점차 상실해가는 상황이다. 그것은 대안적 질서와 그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념의 도전 탓이기도 하다.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2022년 6월 나토가 12년 만에 전략 개념을 수정해 중국과 러시아를 “체계적 도전”과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것은 바로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이런 변화와 함께 폭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서구의 해석이 점차 약해지고, 오히려 제국적 지위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미국의 독단적

74) Cooper, Robert. 2004. 『평화의 조건』(홍수원 역), 서울: 세종연구원, 37 이하 참조.

75) Münkler, Herfried. 2012. 『새로운 전쟁』(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272-285, 특히 281 참조.

인 방어적·예방적 군사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쟁하는 해석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는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선제공격을 예방 차원에서 정당화했듯이, 유럽연합과 나토의 동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세계질서 재편을 위한 이 전쟁을 ‘유라시아주의’ 서사에 근거해 정당화하고 있다.⁷⁶⁾

질서의 불안정은 곧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념의 약화를 의미하는데, 그와 함께 지배의 편에서 폭력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저항의 편에서도 더 쉽게 폭력에 의존할 수 있게 된다. 제국의 주변부, 즉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념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곳에서 테러리즘이 저항 세력의 약한 힘을 가속의 전략으로 만회하여 기존 질서의 붕괴를 피한다면, 파르티잔과 게릴라는 자기의 약한 힘을 감속의 전략으로 만회하여 지배 세력의 소진을 꾀한다.⁷⁷⁾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에서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V.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제국론을 중심으로 제국 개념이 세계질서의 변화를 파악하고 전망하는 도구로서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국이 세계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표명하는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기존 제국적 사명과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 네오콘의 대안적 서사,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다가 최근에 독자적 제국 정체성을 추구하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자기 야심을 감추는 모호한 반제국주의적 제국 서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내부, 즉 중심부에서도 강력한 서사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부에서도 경쟁에 직면해 있는 제국적 세력들의 상황, 또는 세계의 서사적 상황을 확인했다.

세계의 정치 질서는 그 시기의 세계가 맞닥뜨린 문제(도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응전)으로서 등장했다.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도, 유엔 중심의 세계질서도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 더는 제 역할을 못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

76)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이해영. 2023.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과주: 사계절 참조.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에 대해서는 또한 이진우. 2022.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 서울: 휴머니스트, 129-153 참조.

77) 파르티잔 전쟁과 테러리즘의 전략적 차이에 대해서는 Münkler, Herfried. 2012. 『새로운 전쟁』(공진성역), 서울: 책세상, 66-68 참조.

계의 질서가 중층적일 수 있음을 가정하면,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유엔이 해결할 수 없는 질서의 안정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질서가 모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질서의 안정과 평화라는 공공재를 공급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단일한 세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세기의 세계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주장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의 자유주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있고, 미국과 중국을 각각 중심으로 한 양극 질서를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런 양극 질서가 낳을 냉전적 대립을 우려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질서에서 주변으로 밀려날 자신들의 처지를 우려하며 다극 질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제국적 세력들 간의 패권전쟁으로 인한 세계질서 자체의 파괴를 막는 것이고,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강력한 물리적 및 해석적 힘의 부재 속에서 폭력이 통제되지 않은 채로 만연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어느 한 국가도 세계 전체에 질서와 평화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뮌클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섯 개의 강대국이 세력균형을 이루는 질서이다. 그것은 국민국가 체제의 형성 이후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세력 균형 체제처럼 지구상의 다섯 강대국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그 다섯 세력은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이다. 뮌클러는 여기에서 특히 인도의 역할에 주목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한 편으로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다른 한 편으로 할 때, 인도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⁷⁸⁾

이런 세력균형은 강대국 간의 전쟁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각각의 제국적 세력의 주변부와 바깥에서 벌어지는 전쟁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목격한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처럼 제국의 주변부와 바깥에서 얼마든지 그런 대리전이 벌어질 수 있다. 제국적 세력들이 주변부의 협력 파트너를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내전의 형태로 국지적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최근에 벌어진 이란 내의 소요 사태도 모두 일정 부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반제국적 저항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국적 서사들 간의 공존 불가능성 문제 외에도, 제국적 서사 내부의 갈등과 모순, 긴장의 요소도 안정적 세력균형 체제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매체 환경은 오늘날, 제국적 서사이건 민족적 서사이건 간에, 서사의 보편적 관철을 점점 더 어렵게 하며, 한때 전쟁의 주인이었던 국가의 퇴조와 맞물려,

78) Münkler, Herfried. 2023. *Welt in Aufruhr*, Berlin: Rowohlt, 401f. 참조.

폭력의 의미 해석을 더욱 과편화하고 있다. 그 결과가 국가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오로지 행위자의 자의적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온갖 정치적 폭력들이다.

뮌클러의 제국론은 이와 같은 현실의 변화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유럽의 제국적 역할을 촉구하는 서사적 시도이다. 그동안 유럽과 특히 독일이 체계적으로 기피해온 지정학적 사고와 제국적 역할을 재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유럽이 미국의 하위 파트너 신세나 러시아의 팽창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신세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질서의 한 축이 되도록 하려는 전략적 조언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채하는 제국’ 유럽의 ‘해석 엘리트’ 뮌클러의 자의식과 함께 현실에 ‘개입하는 사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⁷⁹⁾

참고문헌

- 공진성. 2012. “제국이라는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서석사회과학논총』, 5집 2호.
_____. 2019. “전쟁의 변화와 전쟁론의 진화”, 『현대정치연구』, 12권 2호.
김명섭. 2005. “국제와 제국: 국제질서의 변동과 제국담론의 발전”, 『세계지역연구논총』, 23권 1호.
김민아. 2017. “베르다예프와 러시아 혁명”, 『인문논총』, 74권 4호.
박종희. 2024. 『힘과 규칙: 국제질서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엄충섭. 1990. ““모스크바-제3로마” 이론에 관한 연구”, 『노어노문학』 3권, 1990, 201-218쪽.
이명수. 2025. “우크라이나전쟁의 ‘제국전쟁’적 기원과 양상: 뮌클러의 제국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9집 4호.
이삼성. 2006. “미국 외교사학과 ‘제국’ 담론의 전복: 신보수주의와 존 L. 개디스의 본질주의 외교사학”, 『국제정치논총』, 46집 4호.
이진우. 2022.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 서울: 휴머니스트.
이해영. 2023.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광주: 사계절.
전재성. 『미래 세계정치질서와 권역이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25.
최진석. 2023. “보편제국, 근대의 초극 혹은 귀환: 알렉산드르 두긴과 유라시아 지정학”, 『슬라브학보』, 38권 4호.
柄谷行人. 2016. 『제국의 구조』(조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 b.
赵汀阳. 2022. 『천하: 세계와 미래에 대한 중국의 철학』(김중섭 역), 서울: 이음.
Allison, Graham. 2020. “The New Spheres of Influence: Sharing the Globe With Other Great Powers”, *Foreign Affairs*, Vol. 99, No. 2.
Cooper, Robert. 2004. 『평화의 조건』(홍수원 역), 서울: 세종연구원.

79) 제국의 ‘결정 엘리트’와 ‘해석 엘리트’의 구분과 각각의 기능에 관해서는 Münkler, Herfried. 2015. 『제국』(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197 참조. ‘개입하는 사상(eingreifendes Denken)’이라는 표현은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것이다. 뮌클러는 홉스의 사상을 그런 것으로 묘사한 바 있다(Münkler, Herfried. 2014. *Thomas Hobbes. Eine Einführung*, Frankfurt/New York: Campus Verlag, 41).

- Dante Alighieri. 2009. 『제정론』(성업 역), 파주: 경세원.
- Delbrück, Jost and Dicke, Klaus. 1985. "The Christian Peace Ethic and the Doctrine of Just War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Law",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28.
- Fella, Tobias. 2022. *Preventing Preemptive Superpower Suicide: Neokonservative Logik und Amerikas Niedergang*, Doctoral Dissertation,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 Grossheutschi, Felix. 1996. *Carl Schmitt und die Lehre vom Katechon*, Berlin: Duncker und Humblot.
- Hobbes, Thomas. 2008. 『리바이어던 1』(진석용 역), 파주: 나남.
- Münkler, Herfried. 1996. *Reich, Nation, Europa: Modelle politischer Ordnung*, Weinheim: Beltz Athenäum Verlag.
- _____. 2012. 『새로운 전쟁: 군사적 폭력의 탈국가화』(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 _____. 2014. *Thomas Hobbes. Eine Einführung*, Frankfurt/New York: Campus Verlag
- _____. 2015. 『제국: 평천하의 논리』(공진성 역), 서울: 책세상.
- _____. 2022. *Die Zukunft der Demokratie*, Berlin: Brandstätter Verlag.
- _____. 2023. *Welt in Aufruhr: Die Ordnung der Mächte im 21. Jahrhundert*, Berlin: Rowohlt·Berlin Verlag.
- Münkler, Herfried and StraBenberger, Grit. 2016. *Politische Theorie und Ideengeschichte: Eine Einführung*, München: C. H. Beck.
- Osterhammel, Jürgen. 1995. "Kulturelle Grenzen bei der Expansion Europas", *Saeculum*, Vol. 46.
- Weber, Max, 2023. 『직업으로서의 과학 | 직업으로서의 정치』(김덕영 역), 서울: 길.

【 Abstract 】

Empire, Narrative, War, or Herfried Münkler's Theory of Empire

Gong, JinSung

This article focuses on Herfried Münkler's theory of empire as a theoretical tool for identifying and forecasting changes in the 21st-century world order, examining its background, content, and characteristics. First, it explores the differences between imperial order and international order—presented as two historical types of world order—and identifies why these two orders overlap today, emphasizing the need to understand the concepts of empire, hegemony, and state as relational expressions of power. Furthermore, it examines the imperial narratives of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which reveal their self-identities and perceived missions for the world as they compete for global hegemony. Finally, the article investigates the issue of asymmetric warfare, which is dominant in an imperial order based on the dichotomy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 The patterns of asymmetric warfare are linked to the justification of violence in an asymmetric manner, contrasting with modern symmetric warfare between states that justified and regulated violence symmetrically. Through Münkler's theory,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se new phenomena of war are connected to the decline of the international order or the emergence of an imperial order and interprets their political implications.

Key Words : Herfried Münkler, World Order, Empire, Narrative, Asymmetric Warfare